



한라인터뷰 4·15 총선 한달 앞으로... 강효국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코로나19 비상... 선거 관심 이끌기 총력”

투·개표소 방역대책 수립에 투표율 저조 우려 다각 홍보 가짜뉴스 등 엄정 대처... 갈등 극복 새 미래 전환점 기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총선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4·15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강효국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부터 향후 선거관리방향 등을 들어봤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코로나19로 인해 후보자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위축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범국민적 운동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각종 대민 홍보를 비대면 홍보로 전환했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 인쇄물,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투표소와 개표소 예정장소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이번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최근의 정치환경을 보면 선거법 개

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도 있지만 국민통합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범도민적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 위한 활동 계획과 중점 관리방향은=코로나19로 인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참여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16일부터 선거일까지 TV, 옥외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버스내 모니터), 유튜브, 트위터 등에 영상물을 상영·표출·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나=먼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복잡해졌다. 총 47석의 비례의석 중에서 17석은 기존과 같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지만, 나머지 30석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득표율을 50%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이 과정



강효국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에서 각 정당이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가 연동의석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구의를 많이 확보한 정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배분의석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 문제는 선거참여 정당이 많아지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져서 수개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표시간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부터 투표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고3학생

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도는 17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본격 선거운동에 나서는 후보들이 주의해야할 점은=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이버상의 비방·허위사실공표, 가짜뉴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후보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특히 유념해 주기 바람직하며 무엇보다도 선거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표용 여론조사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표·보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비방·허위사실 공표 전담TF'를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이번 총선에서는 대면 선거운동이 위축되면서 SNS와 유튜브를 통한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보자, 그 가족 등에 대한 가짜뉴스,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흑색선전에 현혹됨이 없이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숙고한 후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선택 2020 제주도의 미래 D-30

<정당·성명·가나다 순>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브리핑

“연동에 생활SOC 복합화” “통합당 승리 함께 해달라”

제주시갈 송재호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사진) 예비후보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와 연동주민센터 합동청사 신축 추진과 연계해 여유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겠다”면서 “건강·여가·문화·체육 등 ‘생활SOC 복합화’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연동지역 주민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제주시갈 장성철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장성철(사진)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미래통합당 후보로 확정됐다”면서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혁신과 통합을 지향하는 통합당 지지자와 당원, 고경실·구자현·김영진 예비후보가 함께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승리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희수 민생당 한배 타자”

제주시갈 양길현 예비후보

민생당 양길현(사진)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고경실 예비후보의 불출마 결심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에게 “제주 민생을 살리고 자존을 지키기 위해 한배를 타자”고 거듭 제안했다. 14일에는 “재난기본소득의 길을 연 전주시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면서 제주도정의 분발을 촉구했다.



“반려동물 장례시설 도입”

제주시갈 박희수 예비후보

무소속 박희수(사진) 예비후보는 15일 ‘반려동물 장례시설 및 공제조합 도입’을 공약했다. 박 예비후보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돌봄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내직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 부지 토지공개념 실현’도 약속했다.



“오영훈, 4·3활동 공개하라”

제주시갈 부상일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사진) 예비후보는 15일 “오영훈 예비후보가 국회에서 벌인 4·3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미래통합당 후보로 정식 선정돼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나서게 됐다”며 “가장 먼저 4·3특별법 개정 미뤄지고 통과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부터 원상회복”

제주시갈 차주홍 예비후보

한나라당 차주홍(사진) 예비후보는 15일 “코로나19로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행업계의 장기적인 불황과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제주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며 “하지만 제주는 확진자 4명으로 인한 격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 만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임시회 17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다룬다

8일간 회기... 조례안 등 심사 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도

코로나19 여파로 2월 임시회가 취소되면서 연기됐던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조례안·동의안·청원 등에 대한 안건심사와 코로나19 대응 현안보고 및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이와함께 20일에는 황우현 제4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도 이뤄진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제주도 출산장려금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제주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및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등이 담긴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등 의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도 개

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해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섬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관련 정원 등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도립학교 및 교육기금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할 예정이다.

반면의견이 맞서면서 6개월째 상임위에 계류중인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지구 지정 동의(안)은 일단 이번 회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수축위가 분회의날 심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오은지기자

이상이, 민주 비례대표 14번

이상이가 제주대학교 교수(복지국가소사이터 공동대표)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4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종 비례대표 후보에 오른 31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2002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자문교수,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의 복지특별단장을 역임했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비례연합정당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소수정당을 배려해 민주당 후보는 후순위로 배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부미환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의료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323-증-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시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영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영고 입구 맞은편 중앙시협 2층)
756-2833

그랜드보청기

정자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 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샅샅을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

1.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씻기
2.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기

그랜드보청기는 고객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